

12월 셋째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문 - 대림절 세번째 주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대림절 세번째 주일로서 은혜로운 계절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해 더욱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세번째 주일에 저희는 특별히 '기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화의 근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니라”(누가복음 2:10)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땅의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자연재해와 가난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이들, 가족과 이웃의 사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 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시편 23:1-2)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겸손히 행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림절이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맞이할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축제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참된 기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삶 속에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완성하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